‘강식당’, 치열함이 안긴 역발상 힐링스토리

강호동 필두 멤버들 좌충우돌 이야기 초점

우리네와 같은 현실 공감 · 웃음 이끌어 내

이국적인 도시를 배경으로 한 로맨틱한 순간, 휴가를 떠나온 사람들의 여유로운 모습. 주문한 음식이 30분 넘도록 나오지 않음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외국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너무 현실에 치여 ‘빨리 빨리’를 외치며 살아온 것은 아닌가 문득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던 ‘윤식당’.

낯선 장소에서 낯선 사람들이 한국 음악을 먹으며 펼쳐지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꿈 같은 순간을 선사했다. 물론 이 와중에 적은 인원으로 식당을 꾸려야 했던 윤여정, 신구, 이서진, 정유미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을 선사하던 ‘윤식당’과는 태생부터가 다른 ‘신서유기 외전 강식당’(이하 강식당)이 지난해 12월 5일 베일을 벗었다.

시작은 이수근이 던진 농담이었다. ‘신서유기4’ 방송 당시 이수근은 “강식당을 차리자. 사장이 더 많이 먹는 식당”이란 제안을 장난스레 던졌고, 용볼 소원을 빌 때도 그는 “강식당 언제 가는 거에요?”라며 재차 농담을 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 같은 출연진의 농담을 나영석 PD는 허투루 넘기지 않았다. “내가 ‘강식당’ 한다는 걸 텔레비전을 보고 알았어”라는 투정 섞인 강호동의 말에도 불구하고 준비는 일사천리였다.

그리고 베일을 벗은 ‘강식당’은 ‘윤식당’과는 확연히 달랐다. 아름다운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긴 했지만 ‘윤식당’과 ‘강식당’은 보여주고자 하는 것 자체가 달랐다.

‘윤식당’이 이국적인 풍경과 낯선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어우러진 ‘윤식당’이 자아내는 모습을 전체적으로 담아냈다면, ‘강식당’은 풍경도 손님도 아닌 강호동을 필두로 한 멤버들의 좌충우돌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

매일밤 ‘강호동까스’를 만들기 위해 450g짜리 고기를 두드려야 하는 중노동 지옥이 멤버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신서유기’를 통해 남다른 호흡을 다져온 멤버들이긴 하지만 식당 운영은 그 이상의 합이 필요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몰려드는 손님과 재빨리 요리를 해내야 하는 상황이 멤버들에게 ‘멘붕’을 선사하며 시청자들에겐 웃음을 선사했다.

“홀에 있어야지 다 몰려오면 어떻게 하냐”는 강호동의 역정에 은지원은 “누가 밥 먹는데 옆에서 알짱거려요”라며 맞받아치는 등 혼돈의 상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행복한 키친이에요” “괜찮아 성급할 필요없어” 등 서로를 격려하는 강호동의 멘트는 묘하게 어우러져 큰 웃음을 선사했다.

‘강식당’은 전쟁터같은 식당의 단면을 제대로 담아냈다.

단 한순간도 앉아있을 틈 없는 노동의 현장이다.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정리할 것도 많다”는 이수근의 말처럼 식당을 여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일이 너무 많아 “멘트를 못하겠다”는 이수근의 말처럼 ‘강식당’은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노동에 치인 멤버들의 모습을 보여줬다. 힐링은 오간데 없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시청자들의 반응은 더 뜨겁다.

‘강식당’ 4회는 유료플랫폼 가구 시청률 평균 8.2%, 최고 9.0%를 기록했다.(닐슨코리아/전국기준) 평일 오후 10시 50분 편성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성과다.

‘윤식당’이 떠나고 싶은 현대인들의 욕구를 대리만족시켰다면, 현실의 치열함을 고스란히 담아낸 ‘강식당’은 우리네와 별반 다르지 않은 현실이 더 큰 공감과 웃음을 이끌어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는 강호동과 이수근, 은지원, 안재현, 송민호의 모습이 지옥 같은 현실을 인내하고 견뎌내는 현대인들에게 역설적으로도 큰 힐링을 선사하고 있는 것이다.

‘비수기는 옛말’ 박효신부터 수지까지 ‘컴백 러시’

‘가요계 1월은 비수기’라는 말도 이제는 옛말이다. 1일 0시 박효신 컴백을 시작으로 새해 벽두부터 많은 가수들이 컴백을 알리며 2018년 도약을 예고했다. 신인 아이돌부터 대형 가수들까지 라인업 역시 다양하다.

1월 첫째 주는 올 한해 기대되는 유망주들의 컴백이 주를 이룬다. 멤버 전원 10대로 구성된 신인그룹 TRCNG는 지난 2일 첫 싱글 앨범 ‘후 엠 아이(WHO AM I)’를 공개했다. 소녀 앞에서 깨어나는 소년 내면의 본능을 위트 있고 카리스마 있게 그린 타이틀곡 ‘울프 베이비’를 통해 가요계 ‘틴 파워’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3일에는 크리샤츄, 모모랜드, 엔플라잉이 동시 컴백했다. 지난해 SBS 오디션 프로그램 ‘K팝스타6’를 통해 얼굴을 알린 크리샤 츄는 3일 정오에 신곡 ‘라이크 파라다이스’를 발표한다. 워너원의 ‘네버(NEVER)’, ‘에너제틱(Energetic)’을 만든 작곡가 펜타곤 후이가 작사, 작곡에 참여해 크리샤츄와의 시너지를 예고했다.

최근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출연하며 주목받았던 주이가 속한 걸그룹 모모랜드 역시 이날 오후 6시 새 앨범 ‘그레이트(GREAT!)’를 발표하고 컴백했다. “매력을 뿜어낸다”는 의미를 담은 신곡 ‘뿜뿜’으로 모모랜드만의 발랄한 매력을 전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해 연말 컴백 예정이었던 엔플라잉은 한 차례 앨범 연기 끝에 이날 오후 6시에 세 번째 미니앨범 ‘더 핫티스트 : 엔플라잉(THE HOTTEST : N.Flying)’를 발표했다. 언젠가 뜨거운 화제의 중심에 서겠다는 포부를 담은 타이틀곡 ‘뜨거운 감자’를 비롯해 엔플라잉만의 유쾌한 에너지가 담긴 앨범이다.

마마무는 4일 스페셜 싱글 ‘칠해줘’를 깜짝 공개한다. 2018년의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는 의미를 담은 ‘칠해줘’는 팬들과 하나되어 올해를 함께 색칠해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1월 둘째 주는 컴백 대전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멤버 호야의 탈퇴로 6인조로 개편된 인피니트와 블락비는 8일 동시에 컴백을 알렸다. 인피니트가 8일 발표하는 세 번째 정규앨범 ‘톱 시드(TOP SEED)’는 지난 2016년 9월 발표한 ‘인피니트 온리(INFINITE ONLY)’ 이후 1년 4개월 만에 발표하는 앨범으로, 지난 ‘비긴 어게인’ 콘서트에서 신곡을 최초 공개하며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은 바 있다.

블락비는 멤버 박경이 프로듀싱한 타이틀곡 ‘떠나지마요’로 돌아온다. 앞선 앨범 ‘몽타주’에서 깜짝 놀랄만한 변신을 시도했던 블락비는 이번에는 겨울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미디엄 템포의 곡으로 따뜻한 감성과 함께 블락비만의 개성을 담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마이걸은 오는 9일 동화 콘셉트로 컴백한다. 신곡 ‘비밀정원’은 리드미컬한 락 기반 트랙 위에 동양적이고 신비스러운 멜로디를 오마이걸 만의 감성적인 보컬로 표현한 노래다.

10일에는 큐브 엔터테인먼트 이적 후 첫 앨범을 발표하는 조권과 ‘우주를 줄게’, ‘썸 탈거야’ 등 발표하는 음원마다 차트 1위를 휩쓰는 볼빨간 사춘기,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얼굴을 알린 MXM이 동시에 컴백한다. 각기 다른 세 팀의 색깔만큼 이들의 성적에도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솔로 가수들의 컴백도 줄을 잇고 있다. 역대급 완성도를 예고하며 3년 3개월 만에 컴백하는 김동률과 ‘와이 돈츄 노우(Why Don't You Know)’로 성공적인 데뷔를 알린 청하가 프로듀싱팀 블랙아이드필승과 호흡을 맞춘 새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가시나’로 지난 해 열풍을 일으켰던 선미는 ‘주인공’으로 18일 컴백을 앞두고 있다.

이 외에도 미쓰에이 해체 이후 첫 솔로 활동을 시작하는 수지와 프로젝트 그룹 JBJ와 레인즈, YG 식구 아이콘과 블랙핑크, 올해 10주년을 맞는 다비치 등이 1월 컴백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 중이다.

故김주혁 유작 ‘흥부’, 설날 개봉 확정

고(故) 김주혁의 유작인 사극 영화 ‘흥부’(조근현 감독, 영화사궁·발렌타인필름 제작)가 오는 2월 설 개봉을 확정했다.

‘흥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고전소설 ‘흥부전’을 새로운 관점과 설정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풍자와 해학, 권선징악의 스토리로 시대를 넘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흥부전’은 아직 작가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

‘흥부’는 바로 이 작자 미상의 소설 ‘흥부전’을 쓴 작가가 흥부라는 설정을 보여준다.

조선 최고의 천재작가 흥부(정우)가 전혀 다른 두 형제 조혁(김주혁)과 조항리(정진영)를 통해 영감을 얻어 탄생시키는 작품이 바로 ‘흥부전’이라는 것. 그간 스크린에서는 ‘장화, 홍련’ ‘전우치’ ‘방자전’ ‘마담 뺑덕’ 등 고전소설을 영화로 새롭게 그려낸 작품들이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는 기존에 알고 있던 스토리가 아닌 새로운 관점과 해석으로 영화적 상상력을 극대화했기 때문이다. ‘흥부’ 역시 누구나 알고 있는 ‘흥부전’이지만 누구도 모르는 ‘흥부전’의 작가와 그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을 밝힌다는 참신한 스토리로 색다른 재미를 예고한다.

여기에 ‘흥부’는 조선 후기 사회상을 담은 스토리 안에 허구를 가미해 흥미를 더한다. 어릴 적 흥경래의 난으로 형과 헤어진 흥부, 과도한 세도정치로 힘을 잃은 왕 헌종, 그로 인해 날로 피폐해졌던 백성들의 삶 등 역사적 인물과 사실에 가상의 캐릭터들이 결합한 ‘흥부’는 보다 풍성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선보인다.

조선의 10대 왕 연산군을 내면의 아픔과 고독을 가진 인물로 재해석하고 광대 공길을 극으로 끌어들인 ‘왕의 남자’, 계유정난을 배경으로 얼굴을 통해 앞날을 보는 관상가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낸 ‘관상’ 등과 같은 대표적 팩션 사극 작품들에 이어 2018년 ‘흥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극 드라마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흥부’는 붓 하나로 조선 팔도를 들썩이게 만든 천재작가 흥부가 남보다 못한 두 형제로부터 영감을 받아 세상을 뒤흔들 소설 흥부전을 집필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사극 영화다.

정우, 김주혁, 정진영, 정해인, 김원해, 정상훈, 천우희, 진구 등이 가세했고 ‘26’ ‘봄’ ‘번개맨’의 조근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오는 2월 설날 개봉한다.

‘싱글와이프2’, 라인업 확정

‘낭만일탈’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고, ‘아내DAY’라는 키워드를 만들어낸 SBS ‘싱글와이프’가 시즌2로 돌아온다.

‘싱글와이프’는 지난해 시즌 1이 첫 방송돼 ‘한 달에 한 번 아내 DAY’라는 슬로건 아래 고생하는 아내에게 남편들이 파격적인 휴가를 선사하는 컨셉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매회 이슈가 된 것은 물론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달성하며 시청률과 화제성도 독보적이었다.

이에 ‘싱글와이프’는 오는 17일부터 새로운 출연진으로 시즌 2를 시작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방송 최초’로 공개되는 아내들의 합류다.

개그맨 서경석의 ‘13세 연하 아내’ 유다솜과 ‘거친 남자’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배우 정만식의 아내이자, ‘일본 유학파 출신’ 연극배우 린다전이 ‘싱글와이프’를 통해 모습을 드러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2남 2녀’를 둔 다둥이 엄마 개그맨 정성호의 아내 경맑음, ‘90년대 엘리트 MC’의 표본인 임백천 아내 김연주도 출연을 확정했다. ‘싱글와이프 시즌2’는 17일 오후 11시 10분에 첫 방송된다.

오늘의 운세 2018년 1월 4일 목요일 (음력 11월 18일)

▶쥐띠 활발한 활동으로 여유를 갖지 못하는구나. 좀 더 시간을 갖고 관심을 가지며 자녀부탁에 응하라. 탈선될까 걱정된다. 가정에 건강은 사업에도 건강이다. 돼지, 개, 쥐띠 자녀에게 많은 관심이 요한다.

▶소띠 경쟁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총명한 지혜로서 업자와 교제함이 좋을 듯. 부흥 발전되는 지혜가 트이는 오늘은 행운의 날 도움 줄 자 서, 북간에 있구나. 흰색과 남색이 오늘을 기분 좋게 하는 색. 건강을 체크할 것.

▶호랑이띠 처음 시작은 좋으나 마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일들이 많구나. 현재는 모든 것을 자신있게 나타내려 하지만 타인을 무시하는 마음가짐은 먼 훗날 번민으로 연결되기 쉬우니 깨끗한 처신이 요구된다. 오늘은 음주운전 조심.

▶토끼띠 새로운 포부와 희망을 가지고 힘껏 낳아갈 때 뜻대로 일이 성사될 운. 그러나 경쟁자가 많다고 짜증내지 말고 어떻게 경쟁 사회에서 이겨나가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다. 10, 11, 12월생 검정색옷을 입고 자신감을 나타내라.

▶용띠 지금은 힘들지만 미래와 결과는 매우 길하니 희망을 버리지 마라. 어둠이 있으면 반드시 밝음이 있는 법. 7, 8, 9월생은 붉은색과 밤색 옷을 입고 힘을 내라. 멋지게 원하는 바 추진 될 것이다. 단, 3, 5, 7월생을 피할 것.

▶뱀띠 허황된 욕심보다는 노력을 기함이 성공의 열쇠며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복을 부른다. 그러나 당신이 여자라면 주의할 것이 많을 듯. 유혹에 손길을 뿌리치고 최선임을 알아야 할 때다. 북쪽은 삼감이 좋을 듯.

▶말띠 갈 길이 아직은 멀리 있으니 더 많은 분발을 해야 할 듯. 신념을 굽히지 말고 맡겨진 임무를 다할 때 뜻한바 성취할 수 있겠다. 미운사람 떡 하나 더 준다지 않던가. 마음에 미운 정 버리고 살아라.

▶양띠 고집대로 일처리를 하지 마라. 내일을 위해서 한발자국 뒤로 물러섬이 좋을 듯. 외출 중에 자동차는 가지고 나가지 않음이 좋겠다. 음주가 만취할 일이 있을 듯. 남쪽에서 기다리는 사람 나타날 수 있으니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됨.

▶원숭이띠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던가 생각지도 않던 기쁜 소식이 올 듯. 모든 사물에 시야를 넓혀서 활동함이 좋겠다. 북쪽사람이 도움에 손길을 주니 한층 더 활발하게 움직여라. 지난일로 가정불화를 만들지 말 것.

▶닭띠 함정이 너무 많아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할 때 공든 탑이 무너질까 두렵다. 알지도 못하는 연인 따라 여행하다 큰 코다칠까 염려된다. 오랜만에 외출로 즐거움을 만끽하고 고궁이라도 걸으며 가족과 함께 보냄이 어떨지.

▶개띠 들떠 있는 마음에 불필요한 계획으로 모든 일이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할 때다. 1, 4, 9월생은 금전관계로 구설조심. 노란색을 좋아하지 마라 하던 일 중단될 수 있다.

▶돼지띠 마음의 변화가 생겨 일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으니 슬기롭게 다스림이 좋겠다. 자기 자신은 자신만이 움직이니 여행이라도 하면서 마음을 달래어 자중하라 그것이 실패를 피해가는 지름길임. 애정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